



3면

농생명·바이오사업단발대식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음 9월 23일) 제337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속도'

2023 미래전북포럼
'이차전지 심포지엄'

전주대 등과 발전전략 토론
도, 전문가 의견 수렴 계기



지난 3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미래전북포럼 '전북 이차전지 심포지엄'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가 도내 산·학·연·관과 함께 힘을 모아 전북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는 지난 9월 이차전지 추진단 출범식 이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IR)을 각각 방문해 이차전지 연구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3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2층 은누리홀에서 본격적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 전략을 토의 하기 위한 2023년 미래전북포럼 '이차전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북 이차전지 발전을 위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성호 센터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송준호 수석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강영구 연구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홍인 센터장, 비나텍 송경의 상무, 독일 아헨공대 HARA Masahiko 교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차전지 기술과 관련해 '배터리 산업동향 및 기술개발 전망', '사업분야별 슈퍼커패시터(Supercapacitor) 적용사례', '전고체 고분자 전지의 현황과 전망',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현황 및 재활용 기술' 등의 주제로 각 기관 연구원들의 초청강연이 이루어

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패널로는 오택립 미래산업국장과 이해원 석좌교수를 포함한 5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이 도에서 발굴한 이차전지 초격차 연구개발(R&D) 관련 과제인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400Wh/kg급 리튬이차전지의 초고에너지밀도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리튬이차전지용 Co-free 고용량고 안전 양극소재 기술 개발),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리튬 메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에 한발짝 더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도는 심포지엄을 통해 광물·자원 확보 등 급변하는 이차전지 산업 동향과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전북의 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뿐 아니라 앞으로 전북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전략을 모색해 우선 순위에 따라 행정력을 선택·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로 전 도료공업대학 재료화학공학부, 현 독일 아헨공대 방문교수인 HARA Masahiko 교수가 일본과 유럽에서의 도료공업대학의 환경에너지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우리 전북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이 앞서 나가도록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박진배 전주대 총장은 "이차전지 산업 유관 학과인 신소재화학공학과 및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를 필두로 전북도 R&D 및 인력양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지속적 접촉을 하고 있으며, 광물, 재활용 분야 등의 연구개발 지원과 센터건축 국비 지원, 산단 전력과 폐수처리시설 증설에 관한 예산의 증액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3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왕의 공원 프로젝트 3차 전문가 릴레이 3차 포럼'이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역사성 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 방향도 고민을'

왕의 공원 프로젝트 3차 전문가 릴레이 포럼

"국가사업 추진 위해 역사·선도성 등 확보 차별화된 전주 후백제문화 콘텐츠도 개발해야"

전주시 민선8기 핵심사업인 '왕의 공원' 프로젝트가 전주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 복원 등 과거에 치우치지 않고 미래 발전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의영 경기대 건축과 교수는 지난 3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왕의 공원 프로젝트 3차 전문가 릴레이 포럼'에서 "왕의 공원 프로젝트는 후백제 판역사문화권의 역사성에만 초점을 두고 국가 고도의 보존과 복원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보인다"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번 포럼은 왕의 공원 프로젝트 3번의 릴레이 포럼 중 마지막 시간으로, '왕의 공원과 전주의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위원과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의영 경기대 건축과 교수, 이종휴 전주MBC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위원은 "왕의 공원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성, 선도성, 거점성 등이 있어야 하며, 어떠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지 검토하고 이에 맞게 사

업 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초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당위성과 함께 전주와 주변 지역 간 협력적 관점에서 사업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가 전주 차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접근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며 "국가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 전략 방안과 광역 단위로의 연계에 있어 타 유사지역과 차이를 둘 수 있는 전주 후백제 문화원의 콘텐츠 개발전략이 함께 도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휴 전주 MBC 국장은 "시민들의 역사적 자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선시대 후백제민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역사적 맥락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후백제의 왕도였다는 실제적 증명을 위해 발굴된 유적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며, 발굴된 유적지를 지속 홍보하고 후백제 관련 대규모 축제 기획, 후백제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조형물 상징물 제작 등 시민에 대한 이미지 각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옥기 기자

"국립수중고고학센터 내년 예타 재도전"... 도, 의지 피력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

지난달 31일 전북도의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중 하나인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 미선정과 관련해, 전북도가 재신청 의지를 피력했다.

국립수중고고학센터는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중문화재 보

존·탐사 기술 개발, 수중문화재 전시·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문화재청에서는 군산시 비응도동 일대에 1,1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센터를 짓기로 했으며, 전북도는 9월 15일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보완해 2024년도 재신청을 권고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수중고고

학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광범위한 수중유산의 발굴이 이루어져야하는 실정이고, 나아가 해양산업 발전과 영해 주권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수중고고학센터가 건립 될 때만 금 해역은 군산 앞바다는 역사상 세곡선과 무역선이 지나던 뱃길인 조운로와 대중국 교역의 거점으로 비안도·십이능과도·아미도 해역 등에서 고

려시대 선박 1척을 비롯해 유물 1만 5,000여점이 발굴된 곳이다. 해양 유물과 난파선을 찾기 위한 수중 발굴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립수중고고학센터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문화재청 육성 사업 중 하나로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타 미반영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지난 8월말 '경제적 타당성 평가(B/C)'이 0.92로 평균 이상으로 나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학생중심 미래교육

미래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꿈

전라북도교육청이 응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